

心理學的 社會的 役割*

崔 祥 鎮

中央大學校 心理學科

어느 學問이건 理論分野와 應用分野가 相補의 關係에서 共存한다. 물론 學問 자체의 性格에 따라 純粹理論 分野 研究가 強調되는 學問이 있는가 하면 應用分野 研究가 中心을 이루는 學問도 있다. 어느 分野를 더 重視하느냐는 學問 自體의 性格, 學問의 傳統 및 社會的 要求 期待等 여러가지 要因에 의해 決定된다. 他 隣接 社會科學에 비해 心理學的 傳統은 應用보다 純粹理論分野 研究活動이 더 強調되어 왔다. 實用성을 強調하는 美國의 경우에도 心理學科는 純粹科學의 理論指向성을 強하게 갖고 있으며 또 이를 자랑으로 삼고 있다. 心理學에서 實驗의 精密성을 信奉함은 곧 純粹科學指向성을 뜻하기도 한다. 純粹科學指向성이 強調되는 風土에서는 產出된 知識의 有用性 問題보다 理論 自體의 精巧性, 獨創性이 더 重要하다. 心理學者가 就業하는 分野는 多樣하나 純粹科學指向성이 가장 尊重되고 規範視되는 것은 大學이다. 그러나 心理學者 包容能力에는 限界가 있다. 1970年度 Gates의 美國心理學者 就業現況調査에 의하면 大學에 從事하는 心理學者와 基礎研究에 從事하는 研究所 心理學者數는 30%에 不過하고 나머지 70%는 應用分

野에 從事하고 있다. 그러나 現在에는 應用分野 從事者 比率이 더욱 增加하여 약80% 정도로 推算된다. 이같이 就業者數에 있어서 應用分野의 優勢現狀은 大學의 收容限界性, 社會의 就業構造 擴張뿐만 아니라 心理學者 自體의 應用分野에 대한 關心 및 努力 增大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韓國의 경우, 韓國心理學會 會員의 職場分布를 보면(車載浩, 1976年 調査)¹ 1965年度에는 就業者 會員 66명중 약 44%가 大學傳任으로 있으며 나머지 56%는 應用分野 機關에 從事하고 있다.² 理論 對 應用的 相對的 就業分布 現況을 떠나도 I을 통해 알수 있는 더 重要한 事實은 34年의 韓國心理學會 歷史를 考慮할때 會員數의 增加趨勢도 매우 약했다는 점이다. 大學의 心理學科 數만 보더라도 現在 心理學 專攻 卒業生을 輩出하고 있는 大學은 5個(이중 2個 大學은 産業心理學科와 教育心理學科의 名稱을 갖고 있음) 大學에 불과하며 定員數에 있어서도 所屬大學內에

1) 車載浩, 韓國心理學的 歷史, 現況, 및 社會科學協同 研究의 方向, 社會科學論文集(서울대), 1976, 1, 61-100.

2) 그러나 이보다 11년 후인 1977년도에는 就業者 會員 128名 중 大學專任者比率이 59%로 增加하여 應用分野 就業者 比率이 相對的으로 減小하였다.

* 編輯者 註. 이 原稿는 1976年 年차대회 심포지움에서 發表한 것을 修正, 補完한 것이다.

표 1. 心理學會 會員들의 職場別 分布

職 場	1976	1965 *
大學專任教授(士官學校教官포함)	75	29
研究所研究員(助教授포함)	17	21
大學 講 師	4	11
政府機關(將校포함)	14	4
精 神 病 院	3	0
中 高 校 教 師	3	1
政 府 企 業 體	2	0
私企業體(心理學專門家)	4	0
私企業 社員 또는 個人事業	6	0
無職, 留學, 大學院生	12	15
	140	81 **

* 韓國心理學會 月報 1965年 4月(第4號)

** 당시 會員數는 75名으로 되어 있어 일부 會員이 몇개 직종에 중복되어 표시된 듯함.

*** 이 表는 申載浩 1976에서 전제한 것임.

서 比較的 적다운 점에서 零細性을 미치고 있다. 또 하나의 特徵은 이들 5個大學이 모두 서울에 位置한다는 점에서 心理學의 地方普及에 比較的 疎忽했었음을 알 수 있다.³⁾

이후 主觀的이기는 하나 韓國의 경우 心理學의 重要性 및 必要性은 心理學者 自身들 보다 教育學, 行政學, 經營學 分野의 專攻者 및 專門家에 의해 社會에서 차츰 代辯되는 傾向을 볼 수 있다. 이는 心理學의 學問的 實用的 重要性이 一般大衆 보다 學界 및 專門家 集團에서 더 잘 認識되고 있음을 示唆한다. 一般大衆의 心理學에 대한 認識은 높지 않다. 이는 大部分의 大學에서 心理

3) 그러나 1978~1979年을 起點으로 地方의 7個 大學에 心理學科가 新設되었으리 定員數에 있어서도 既存 5個 大學의 3배에 가깝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心理學 發展의 展望은 매우 밝다고 하겠다. 이러한 現象은 韓國 社會에서 특히 大學社會에서 心理學의 需要 및 要請이 增加되었음을 잘 反映해 주고 있다.

學科志望生이 極少數에 불과한 現象이 잘 反映해 주고 있다. 大學에서 心理學志望을 忌避하는 理由로 大學生들은 社會就業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최근에 心理學科 學部 卒業生의 경우, 대부분이 職場을 쉽게 잡을 수 있게되어 心理學의 社會進出 現象이 好轉되었다고 보는 心理學者도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樂觀的 解釋은 注意를 要한다. 왜냐하면 이들 就業者의 大部分은 心理學을 專攻했다는 條件으로 就業된다기보다는 大學 卒業者의 一般의 人力需要 不足에 따른 一般的 就業機會 擴大趨勢에 힘입은 結果라고 보는 것이 더 妥當하기 때문이다. 心理學 碩士의 경우도 雇傭機會가 增加되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大學教育 教授의 需要增大에 따른 雇傭增大이지 社會進出의 機會面에서는 아직도 零細性을 免치 못하고 있다. 비록 社會進出을 할 경우에 있어서도 給料나 職級面에서 專門職 으로의 應當한 待接을 받지 못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또昇進의 機會面에서도 결코 有利할 수 없으며 그 職場에서 重要視하는 職責補職이 어려워 士氣低下, 移職 또는 專攻과 關係없는 他職種으로 옮기는 事例도 많았다. 아래에서 이를 좀 더 具體的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心理學 碩士學位 所持者 社會進出 現況

心理學 碩士學位者의 社會職場 就業分布 類型을 보면 韓國行動科學研究所, 韓國教育開發院 등과 같은 學校外 研究所와 學生指導研究所 및 基他 大學所屬 研究所 등을 包含한 研究所 形態의 就業, 다음으로는 鐵道廳, 交通公務院 教育院, 法務部, 內務部, 文敎部, 靑瓦臺등과 같은 教育機關과 第一企劃 調查部, 聯合廣告 調查部, 合同通信社, Fairchild 株式會社등을 包含하는 私企業體의 廣告 및 人事擔當職 및 精神病院과 各種 相談室의 臨床心理職 및 相談職등의 範으로 크게 區分된다. 위와같은 社會機關에 雇傭된 經

우 鐵道廳, 第一企劃, 韓國行動科學研究所, 韓國教育開發院 등과 같은 研究指向의 機關을 除外한 대부분의 기타 機關은 대개 1~2名 정도의 少數心理學者가 參與하고 있어 他 專攻者가 主流을 이루는 所屬機關에서 心理學의 位置를 擧揚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心理學의 社會進出上의 問題點은 과거 心理學者가 어떤 職場에 어떤 形態로 參與하여 어떤 일을 했으며 그 結果는 어떻게 되었나를 分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心理學者들의 社會參與 形態는 여러 心理學者가 함께 參與하는 研究팀의 形態와 現場實務陣의 一員으로 參與하는 現場實務 單獨參與의 경우 1960년대 中半期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당시에 發足된 機關은 石公適性檢査室을 嚆矢로 하여 國防部 選兵委員會, 陸軍本部 人間關係改善委員會, 海外開發公社 人力管理研究所, 鐵道廳 人力管理研究所, 中央學生指導研究所, 法務部 靑少年對策委員會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들 研究所의 研究內容 分野를 보면 크게 人事選抜配置와 問題行動의 診斷이며, 研究活動은 適性檢査, 性格檢査등을 包含하는 心理檢査를 開發하는 일로 集約된다. 따라서 1960년대는 社會進出에 있어 心理檢査의 時代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러나 異常하게도 이들 研究機關은 현재 거의 사라졌거나 改編되었거나 아니면 있어도 그 機能이 活發치 못하다. 따라서 1960년대는 心理學 社會進出에서 試行錯誤期이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教育學者들이 主導하는 研究所에 心理學者가 參與하는 趨勢가 두드러진다. 그 代表的인 例로 韓國行動科學研究所와 韓國教育開發院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이전에도 教育學 關係 研究所인 中央教育研究所에 參與한 心理學者도 5~6명에 이르나 후에 이

研究所는 韓國教育開發院의 형태로 확장 개편되었다. 이들 教育學主導 研究所의 特長은 心理學主導研究所에 비해 그 規模가 컸으며 研究所를 이끄는 리더쉽에서도 博士學位 所持者가 많았다. 研究의 主要內容은 초기에는 心理測定, 學生指導, 教育課程, 相談등 주로 心理學에 가까운 教育學 分野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研究關心分野가 확산되어 教育政策, 人口問題, 學校體制 및 教育體制등 教育의 社會的 體制的 問題에 까지 研究關心을 擴大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이들 研究所는 碩士學位 所持者의 訓練을 擔當하고 博士學位者를 輩出하는데 直接 間接으로 貢獻해왔다는 점에서 專攻分野 人力開發에 至大한 貢獻을 해 오고 있다. 이들 教育學研究所의 또 하나의 特長은 社會의 要求에 따라 研究의 關心領域을 부단히 변경 또는 확대시켜 나갔다는 점이다. 韓國行動科學研究所의 경우, 初期의 教育學 中心의 體制와는 달리 最近에는 人口問題와 經營問題에 큰 比重을 두고 있는 點은 社會變動에 따른 積極的인 適應現象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言及된 官廳所屬 心理學者 研究팀의 경우와 教育學主導 研究所를 相互 比較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겠으나 비교의 粗雜性을 감안하고 상호 特長을 대비시켜 봄은 앞으로의 心理學 社會進出에 대한 參考가 되리라고 본다. 첫째로 心理學者 研究팀과 教育學者 研究팀 사이에는 研究를 主導하는 最高 리더쉽에서 差異를 發見할 수 있다. 教育學팀의 경우 最高責任者 및 運營參謀는 學問的 經綸이 있는 사람이나 博士學位를 所持한 大學教授級이 主動이 되었다. 그러나 心理學팀의 경우는 官廳의 行政家가 最高責任을 지고 있거나 心理學 part의 最高責任者의 學問的 社會的 經綸이 짧은 사람이나 碩士學位 所持者가 대부분이었다. 이와같은 리더쉽에서의 差異는 내부통제의 면에서 보다는 對外的

으로 그 機關의 必要性을 認識시키고 必要한 物的 金錢的 資源을 끌어 들이는데 있어서 後者에게 不利한 條件이 되었다고 解釋된다. 둘째는 研究內容面에서 볼때 社會要求에 대한 適應調節에서 差異를 發見할 수 있다. 앞에서 論한 바와 같이 心理學팀의 경우 주로 心理檢査에만 置重했으나 教育學팀에서는 社會變遷에 따라 人口問題, 企業教育訓練 및 國家人力開發問題, 經營問題에까지 研究를 擴大시켜 나갔다. 셋째로는 大學의 教授들이 學校外 研究機關에 대한 參與意識 및 支援活動에 있어서의 差異를 發見할 수 있다. 教育學팀의 경우, 大學과 研究所가 有機的으로 協助하며 共生關係로 볼 수 있을 정도로 大學教授의 研究所 參與가 活發했고 또 普遍化되었다. 그러나 心理學의 경우, 參與學者數가 적고 參與程度가 微濫의이었을 뿐만 아니라 社會參與 自體를 꺼리는 분위기가져 있어 現場에 나가있는 研究者들의 士氣를 低下시키는 事例도 많았다. 이와같이 大學心理學者가 社會參與에 消極的이었던 것은 心理學의 純粹理論指向의 傳統을 韓國心理學界에서 그대로 踏襲하고 있었음을 示唆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研究팀의 形態와는 달리 現場 實務陣의 一員으로 參與하는 경우, 크게 두가지 分野로 區分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서울시 兒童相談所를 비롯한 各種 相談所, 國立精神病院, 淸涼里 腦病院 등과 같은 相談 및 臨床心理分野로 이 分野의 進出은 1960년대 初盤부터 始作되었다. 또 하나는 第一企劃, 聯合廣告 등을 비롯한 廣告業界, 製藥會社 廣告擔當, 産業體 研修 및 人事管理를 包含한 産業心理 分野에 1970년대 초반기부터 急激히 進出하기 시작했다. 먼저 相談所 形態의 參與는 다거 私設의 形態와 官廳形態로 區分해 볼 수 있다 私設相談所는 그 初期에 大學教授들이 깊이 關與하면서 相談役으로 參與하

는 事例가 많았으며 그 機關의 存續은 比較的 短命했다. 따라서 現在는 心理學者가 參與하는 私設相談所가 거의 없다. 官所屬 相談所의 경우도 그 機能이 活潑치 못해 參與心理學者의 대부분이 後退했거나 남아있는 경우에는 큰 發展을 못해 일각 인공한 官廳心理學 研究팀의 形態와 마찬가지로 不振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臨床心理 分野는 서울에 위치한 몇몇 大學病院과 個人精神病院에 남이 아닌 個人參與의 形態로 10여명의 臨床心理 專攻者가 參與해 왔다. 그러나 臨床心理學의 現場進出者數가 확실히 增加하고 있는 하나 參與歷史에 비하면 增加趨勢는 比較적 느리 것으로 推論되며 役割面에서도 精神科 醫師의 補助役割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보통 3~4명의 臨床心理學者는 醫科大學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心理學의 위치를 높히는데 상당한 成功을 하고 있다고 보겠으나 이들이 奇與하는 分野는 臨床治療보다 臨床研究이다. 個人病院의 경우, 病院에서 臨床心理學 役割에 대한 法的 뒷받침 問題, 精神科 醫師陣의 모이지 않는 경원 등의 問題로 醫師에 準하는 待遇를 받지 못한 뿐만 아니라 精神病院에서의 心理學者 活動勢力의 擴張에 險難한 障礙가 많다. 그러나 最近에 導入된 臨床心理 等級別 資格證制度는 未來에 專門分野로서의 地位를 굳히고 臨床心理學者의 患者治療 參與에 대한 法的 根據를 마련하는 基를 잡는데 礎石이 되다는 점에서 臨床心理學의 社會參與 將來가 注目된다.

廣告 및 人事分野의 現場實務 進出은 最近들어 比較的 活기를 띠고있다. 이 分野에서만은 心理學을 專攻했다는 事實이 稀少價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他 分野 專攻者보다 오히려 專門性을 認定받는 사례도 많다. 특히 第一企劃의 경우 초기에는 1個人이 就業하여 현재 5~6명의 研究

팀으로 늘어난 점은 心理學의 廣告分野 進出에
서의 좋은 成功 例가 되고 있다. 그러나 人事 및
社内研修 分野는 아직도 그 進出이 微微한 편이
며 評價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個人的 能力에 따
라 많은 差異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心理學者 社會進出 現況分析을 綜
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官廳에의 心理學
者 參與는 研究팀 形態參與나 現場 實務要員 參
與形態에서 共히 成功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둘째, 研究팀의 形態로 社會에 진출할 경우 강
력한 리더십이 要請되며 大學教授의 參與意識 및
적극적 지원활동이 필요하다. 研究活動面에서는
社會의 要請을 어느 정도는 敏感하게 받아 들여
研究가 社會에 適應하는 彈性性을 지니는 것이
必要하다. 세째, 現場 實務陣의 一員으로 相談
에 參與한 경우 큰 發展을 보지 못했으며 病院
의 臨床心理職도 扎实的 發展은 해 왔으나 外部
的 條件에 의해 만족스러운 정도는 못 된다.

네째, 現場 實務陣의 一員으로 産業分野에 參
與한 경우 廣告分野는 비교적 成功을 거두고 있
으나 人事 및 研修分野는 그 역사가 짧아 현재로
서는 평가하기 어렵다.

心理學의 社會的 進出을 위한 方向 模索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20여명의 小壯의 韓國
心理學者들과 韓國 心理學의 社會參與에 대해서
2時間余의 論議를 가진 적이 있다. 이 論議의
과정에서 몇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하나를 韓國心理學의 發展이 心理學者의 社會進
出 不振으로 因해 萎縮되고 있다고 대부분의 論
議者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社
會參與를 잘하기 위해서는 大學에서 教育을 잘 시
켜야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論議의 焦點은 大
學에서의 心理學 教育 方向으로 좁혀 졌다. 그
러나 커리큘럼 및 教授方法을 어떻게 하는 것이
社會參與能力 向上을 돕는 것이냐의 問題에 대

해서는 意見이 날로 나누어 졌다. 그 한가지 意
見은 大學에서 應用分野 心理學 보다 純粹基礎
分野 心理學 科目(예컨대 實驗心理, 統計學, 學
習理論 등)에 더 많은 時間을 배정해서 科學的
方法論과 思考方式의 訓練을 강화하면 自然히 社
會應用 分野에 나가서도 適應이 쉽고 心理學의 強
點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反해
또 하나의 주장은 現場에서 要求하는 사람은 現
實業務과 거리가 먼 基礎心理 理論이 강한 사람
보다 應用的 知識이 있어 現場業務에 바로 適應
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基礎보다 應用心理 分野
(예컨대 産業心理, 臨床心理, 心理檢査 등)를 더
중요시 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다. 筆者는 이
두가지 주장이 모두 옳다고 생각되었다. 時間
的 次元에서 볼때 전자의 주장은 長期的 側面的
職場適應 및 發展을 위해 필요하고 후자의 생각
은 직장취업 및 短期的 適應에 초점을 둔 주장
이라 判斷된다. 心理學 教育의 딜레마는 바로 여
기에 있는 것 같다. 二點闕도 알아야 되고 호순·
스타디도 알아야 된다는 2중부담이다. 아마도
이런 理由에서 心理學에서는 大學院을 마쳐야 社
會에서 專門家로 活動할 수 있다는 생각이 擡頭
된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볼 때 大學院
에 進學하는 사람수가 지금까지는 20%를 넘지
않는다. 나머지 80%는 學士資格으로 바로 社會
에 進出한다. 따라서 心理學 教育에서 이 두 集
團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리큘럼 開發
이 必要한 것 같다. 筆者의 생각으로는 大學이건
大學院이건 卒業前에 現場實習(臨床分野이건 產
業分野이건)은 있어야 될 줄로 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心理學科의 現場實
習은 활발치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現場實習만
가지고 問題가 解決될 수는 없다. 純粹理論分野
의 教育도 強化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心理學科
學生이 취업을 이유로 經營學을 포함한 他科 科

目を 受講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筆者의 생각으로는 他學科 科目 受講보다 基礎心理學 講義를 勸將하는 것이 社會進出에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단일 經營이나 行政分野에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면 産業心理學이나 應用心理學 講義에서 이 分野를 心理學 理論과 관련지어 心理學의 입장에서 다루어 주면 더 바람직한 것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他分野 知識과 技術을 自己專攻과 관련시키지 못하고 모방할뿐 그 분야 전공자의 뒤만 쫓아가는愚를 범하게 된다. 美國의 臨床心理學이 精神科 醫師와 마찬가지로 精神分析的 治療만 강조하고 行動治療法을 고유의 무기로 개발하지 못했던것을 오늘의 위치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現場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問題를 心理學的 視點에서 보고 心理學的 問題로 轉換시키고 心理學的 方法으로 解決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질때 專門職으로서의 心理學者의 위치는 굳어질 수 있다. 大學에서 心理學 教育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方法을 提案하고자 한다. 첫째, 臨床, 産業, 社會問題 등을 心理學的으로 把握하고 接近하는 能力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어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實驗研究法, 社會 및 臨床調査法, 統計分析法 등과 같은 科學的 思考 및 方法論에 관련된 科目의 時間數를 늘이고 이를 現場問題와 관련시켜서 가르칠수 있는 教授人力의 확보가 必要하다.

둘째, 應用科目(예컨대 臨床, 産業, 相談, 應用등)의 教育도 心理學的 理論에 치중하여 그 理論이 어떤 現場에서 어떻게 適用될 수 있으며 어떤 問題가 있는가 등을 동시에 論해 줌으로써 그 理論과 現場을 연결시킬 수 있는 能力을 배양시키는 것이 必要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 自身이 現場 問題에 밝아야 하며, 가능하다면 現場觀察 및 現場 實務陣과의 討論機會를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세째, 心理學 實習은 학부졸업취업자의 경우, 大學 4學年에 當該分野 現場에서 가지며, 大學院 進學者의 경우는 學部實習 대신 大學院 三次學期에서 갖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現場實務陣의 專門家를 當該科目 時間에 招聘하여 合同講義 形態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와같은 心理學 教育方法上的 接近과 더불어 필요한 것은 大學의 心理學者側에서 現實問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의 參與라고 생각된다. 美國의 경우라면 大學의 心理學者가 現實問題에 대한 관심을 의식적으로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應用分野에 從事하는 有能한 心理學者가 많아 應用分野는 이미 이들에 의해 이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韓國心理學의 경우 社會에서의 心理學에 대한 認識이 높지 않고, 社會的 經倫, 理論的 成熟度 및 研究訓練에서 充分치 못한 젊은 心理學徒가 社會參與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美國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 韓國에서 大學教授의 現實參與가 갖는 意義는 心理學을 社會에 인식시키고 心理學 專攻者를 社會에 취업시키는데 奇與할 뿐 아니라 心理學 人力의 養成, 輩出과도 관계된다. 心理學 專攻者의 社會進出 展望이 밝지 않을 때 大學院 進學者數가 적을 것이며 이는 心理學 高等人力의 養成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참고로 社會科學 分野中 韓國에서 비교적 역사가 짧은 社會學과 博士數를 비교해 보면 心理學 專攻博士는 20명 미만인데 반해 社會學의 경우는 4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推算된다. 다시 教育學 등과 같은 余他分野에 비해서도 碩士 및 學士의 數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다. 물론 心理學의 人力輩出 未進은 社會與件, 學問自體의 性格등 여러가지 要因이 作用했으리라고 판단되나 大學 心理學者의 소극적 現實參與態度에도 一端의 책임은 있다고 思料된다. 물론 大學教職者가 가지고 있

는 어려움도 있다. 적은 人力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心理學的 知識을 소화시켜 가르치는 일만도 벅하다. 여기에 韓國心理學 教授의 二重的 負擔이 있다. 最近에 이르러 心理學 碩士 및 博士學位 所持者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心理學的 高等人力이 增加될 때 分業이 可能하다. 理論分野 從事者는 理論研究에, 應用分野 關心者는 應用研究에 집중할 수 있는 時期가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時期를 앞당기게 되면 大學의 心理學者가 二重負擔을 안고라도 社會問題에 參與하는 일이라 筆者는 생각한다.

心理學的 社會進出에 關係해서 또 다른 하나는 心理學 碩士學位 所持者를 訓練시킬 수 있는 心理學關係研究所의 設立이다. 心理學的 社會的 認識 普及問題도 個人水準의 社會參與만 가지고는 不足하다. 心理學的 社會的 認識과 訓練된 研

究人力을 培養하기 위해서는 心理學者들이 社會的 問題 및 理論的 問題를 함께 研究하는 堅실한 연구소가 필요하다. 教育學的 경우 학교외 연구소가 大學教授들로 하여금 社會에 參與하게끔 도와주는 교무보조적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心理學關聯研究所의 設치는 大學教授의 社會問題 參與를 촉진시키는 機能面에서도 그 意義가 있다. 과거에 心理學關係研究所가 設け졌을 때와는 오늘날 우리의 여건은 다르다. 人力의 면에서, 專門知識의 면에서, 社會經濟構造의 면에서 과거보다는 훨씬 유리한 立場에 있다.

이 使命은 누군가가 해 주어야 韓國에서의 心理學 發展도 있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어느 學問이건 유능한 人力의 培養이 있을 때 그 學問自體의 發展도 隨伴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